

<두 개의 빛의 제국> 20210120 박준희

하나였던 두 나라가, 완전히 둘로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 있다. 마치 오래된 거미줄처럼. 늘 그곳에 있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빛의 제국’, 통일 관련 독후감 대회를 위해 내가 읽은 도서의 제목이다. 내가 통일 관련 도서로 소설 ‘빛의 제국’을 선택한 이유는 1980년대 이후 현대사, 남북 분단의 역사 등 해당 시기가 생소한 20대에게 간접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추천사 덕분이었다. 책은 추천사 그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시기가 생생하게 다가왔다. 책에는 나도 몰랐던 우리나라의 이야기,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지만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소설 ‘빛의 제국’의 주인공 김기영, 그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간첩이다. 자신의 진짜 이름과 나이, 신분을 속이고 남한에서 간첩으로 생활한다. 그러나 20년째 북한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자신을 내려보낸 이상혁이 숙청된 후로, 어떠한 명령도 내려오지 않고, 잊힌 스파이로 남한에서 살며, 자신 또한 자신을 망각하고, 아내와 딸을 두고, 남한에서 쓰는 거짓 이름인 ‘김기영’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간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20년 만에 북한에서 귀환 명령이 내려온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즉시 귀환하라. 이 명령은 반복되지 않는다.”

작중 김기영은 21살까지는 북에서, 그리고 남은 21년, 42살까지는 남에서 살았다. 그는 북한에서 산 만큼 남한에서도 산, 두 나라에 실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도 있었다. ‘그는 그가 살아온 세 나라-북한, 팔십 년대의 남한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남한에 대해 생각했다. 그중 하나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귀환 명령을 받은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꺼린다. 그것은 물론 남한에 있는 아내와 자식 생각도 있었지만, 북으로 돌아가서 보낼 남은 삶을 걱정하는 마음 또한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북한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을 자주 회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가 회상하는 북의 모습은 북한에서 지내본 적 없는 나도 알 것만 같은 어린 시절의 장난과 생활에 대한 향수가 느껴졌다. 두 나라는, 당연하게도 닮아 있다. 1948년 이전까지, 분단되어 지낸 시간보다 한 나라로 지낸 시간이 압도적으로 기니까 말이다. 특히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들의 생활 방식, 문화, 민족 특유의 정서는 더욱이 그렇다. 그래서인지 남한에 내려오고 얼마 안 가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던 그는 북한과 남한의 윤리가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처럼 닮아 있다는 말도 했다.

이 작품은 북한에서 산 삶, 남한에서 산 삶이 딱 절반으로 나누어진 김기영을 등장인물로 내세우며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과 닮은 점을 와닿게 그려내고, 독립적인 인물인 그를 통해 보는 세상은 색다르다. 간접체험은 물론 내가 그 작품 속에 들어간 느낌이 느껴질 만큼이다.

나는 작품에서 보여지는 북한과 남한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탈북하는 사람들, 사회의 불안, 떨어진 가족의 삶...

여기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분단으로 일어난 문제들이다. 기영이 북한에서 유년 시절 마음에 그리고 있던 소녀, 정희. 훗날 기영은 남한에서 그녀를 마주친다. 그녀는 기영을 피해 도망가며, 결국 붙잡혔을 때는 봐 달라며 용서를 빈다. 기영이 탈북 한 자신을 잡으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의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빈번하다. 북한에서 우수한 체조 실력을 보이며 극단에도 들어간 그녀가, 목숨을 걸고 탈북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불안, 그것을 해소하기만을 위한 통일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민족이었음을 떠올리면 애뜻한 이야기다.

또한 기영은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살고 있다. 기영은 간첩으로써 임무를 위해 떨어진 것이지만, 한국전쟁때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 탈북 후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 등 많은 가족들이 분단선에 가로 막혀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기영은 아내와, 딸 현미를 두고 북한으로의 귀환을 망설여 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기영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기영은 북에도, 남에도 가족이 있는 셈이다. 그도 분단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기영의 회상하는 북한에서 지낸 유년시절의 일은 내가 좋아하는 장면들 중 하나이다. 기영이 또렷하게 북한의 인민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나름 그 삶을 즐기며 살아가던 어린 시절, 동시에 어머니가 정신병으로 미쳐 생일날 자살해버린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시절. 그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회상이 이어짐에 따라 나는 작품 속 좁고 긴 복도마다 집이 빼곡히 늘어선 하모니카 아파트, 그곳에 나도 있는 것 같았다.

가끔 나도 사람들도 북한이 사람 사는 곳이란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북한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독재자, 핵폭탄, 굶주림과 살인, 그러한 무시무시한 것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일까. 북한이라는 나라에도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산다. 그것은 생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내면서 행복, 기쁨, 슬픔, 절망 등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명절에 다같이 모여 맛있는 식사를 하고, 생일에는 축하의 말을 나누고 있음을. 겨울에는 팡팡 언 강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눈 내리는 날이면 소복이 눈 덮인 언덕에서 썰매를 타고 놀며 살아가고 있음을.

책을 읽으면서도, 읽고 나서도 이 책은 내게 두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마냥 가난하고 불우해 보이는 나라라는 편견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와 나뉘어져 버린 삶이 그곳에 있다. 앞서 말한 문제들을 상기하며 나는 통일에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다. 나는 원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았고,

또 긍정하는 입장도 아니었지만. 책을 읽고 통일이 되어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이 책은 이러한 변화가 있게 했다.

김기영은 북한과 남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기로에 놓이지만 결국 남한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함께 살기 위해서 자수할 것이라는 뜻을 말하지만, 돌아온 아내의 대답은 달랐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북한으로 돌아가 달라.' 김기영은 다투기도, 섭섭하기도 하지만 결국 수긍하고 홀로 남겨진 어두운 밤 아파트 귀퉁이에 주저 앉아 껍껍 울기 시작한다. 그는 지난 21년간 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갈 수 없게 된 그가, 처음으로 서럽게 운다. 그 장면에서 나는 크게 감동했다. 그의 감정이 나에게 절절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두 개로 나뉘어 버린 나라에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그가 가엾게 느껴지기도, 아예 두 개로 나뉘어 버린 나라 그 자체에 대해 애처로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김기영은 결국 후반부에 남한에 붙어서 이중 스파이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명령 받은 대로 저 멀리 서해 바다에서 어두운 바다로, 점멸신호를 쏘아 보냈다. 북한의 동지들이 불완전한 대답을 보낸다. 그리고 그들이 기영을 구하기 위해 있는 힘껏 수영을 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곳으로 모여들고 조명탄이 터졌다. 조명탄 덕분에 하늘은 검은데 세상이 밝았다. 기관총의 총탄이 파도를 뚫는다. 기영은 그 광경을 보며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을 떠올린다. 이 작품의 제목이 '빛의 제국'이 된 것은 아마 그 장면 때문이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남한을 비유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늘은 검은데 세상은 밝다. 21세기의 남한, 그곳은 비교적 화려하고, 안정적인 선진국의 대로를 걷고 있는 것처럼 밝게 보이지만, 아직 많은 사회의 불안이 어두운 하늘처럼 검다. 작품 내에선 내내 남한의 1980년대와 21세기인 현대를 보여주며 사회의 불안은 북한만의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듯했다.

내가 김기영이라면 어떠했을까, 오래 전에 나뉘어 버린 두 나라 모두 나에게 애뜻하고, 또한 살아감에 있어 괴로웠을 그 심정을 생각해본다. 아마 나 같아도 오랜 시간 망설일 것이다. 아버지가 남아있는 북,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고향과 나의 아내와 딸이 살고 있는 남, 자유가 허락된 곳이다. 그의 망설임과 고민은 과연 그 하나에게만 국한될까?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탈북자와 이산가족들의 정서 또한 섞어내고 싶었던 것 같다.

특히 세대를 거쳐 감에 있어 통일에 대한 생각은 마냥 열어지고, 그에 대한 열정도 수그러진다. 요즘 사람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그저 먼 옛날 노래 가사가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젊은 사람들 또한 먼 이야기인 것 같은 통일을 생각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안일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게 된 책이었다. 통일에 다가가는 것은 두 나라 국민들의 의식과, 북한과 우리나라를 아는 것에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

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잠시 내가 김기영이 되어 북한과 남한을 둘러볼 수 있었던 책 이자 동시에 분단에 대한 아픔과 애뜻함을 느끼게 하여 가슴이 저릿했던 책, <빛의 제국>이었다.